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4 Issue | Vol. 3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4% 목표치 돌파 예상되는 4월 인플레이션 — page 1-2
- 1분기에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 page 2-4
- 한국, 필리핀에 FTA 포털 출시 — page 4
- 보다 신속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전개를 위한 전자 시스템 솔루션 활용 — page 4
- 아세안+3, 긴급 상황 및 위기 시 활용할 자금 마련 — page 5-6
- 필리핀, EU와의 자유무역 협상 가속화 희망 — page 6
- 아시아개발은행: 탄소세, 필리핀에서의 잠재력 보유 — page 7

4% 목표치 돌파 예상되는 4월 인플레이션

May 06,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4월에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5개월 만에 4% 상한 목표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그것의 고래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니온뱅크 최고 경제학자인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은 4월 인플레이션이 3월의 3.7%에서 4.5%로 빨라졌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작년 같은 달의 6.6%보다는 느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4월에 엘니뇨의 영향과 글로벌 유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4.5%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라며

“통화이사회(Monetary Board)가 이동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실현된다면, 4월 인플레이션은 BSP의 월간 예상치인 3.5%에서 4.3% 사이에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달 인플레이션은 월별 기준으로 세 번째로 가속화된다.

인플레이션은 1월에 2.8%의 3년래 최저점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분기 평균 3.3%를 기록했다.



Vendors are seen selling various fresh produce at the Bagoio City Market on April 25, 2024.

STAR / Andy Zapata Jr.

필리핀 통계청(PSA)은 내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리핀국립은행(PNB)의 경제학자인 알빈 아로고는 부정적인 기초 효과와 쌀 및 고기와 같은 주요 식품 상품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4월 인플레이션이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BSP의 목표를 넘어선 특히 빠른 인플레이션은 5월에 정책금리 유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2024년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4%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판테온 매크로경제학 부국가 아시아 경제학자인 미겔 찬코는 식품 인플레이션이 6.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4월 인플레이션이 4.1%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점이어야 합니다. 식품 가격의 기초 효과는 5월부터 유리해질 것입니다. 올해의 인플레이션 평균 예상치는 현재 3.4%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으며, BSP는 고래주의적인 언어를 유지할 것이지만 금리에 대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NG은행 마닐라의 고위 경제학자 니콜라스 안토니오 마파는 쌀 및 교통 인플레이션이 4.1%로 예상되는 4월 CPI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다음 두 달 동안 쌀 인플레이션이 주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를 넘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8월까지 인플레이션 하락을 볼 수 있어 올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3.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옥스퍼드 경제학의 경제학자 마코토 추치야는 4월에도 여전히 4% 미만으로 3.9%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식품 가격 수준이 이번 달에도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비록 쌀 가격은 여전히 높았지만, 고기, 생선 및 과일을 포함한 다른 주요 식품 가격은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CPI(성장)가 평균 3.6%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 page 2]

4% 목표치 돌파 예상되는 4월 인플레이션

[Cont. from page 1]

또한 그는 BSP가 5월 16일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되고 최근 페소의 달러에 대한 약세로 인해 그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전망이 변경되어 9월에 첫 번째 인하가 예상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두 번째 분기에서 첫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를 4분기로 연기했습니다."라고 추치야는 말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의 경제학자인 사라 탄(Sarah Tan)은 엘니뇨로 인한 가뭄이 작황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4월 인플레이션이 3.9%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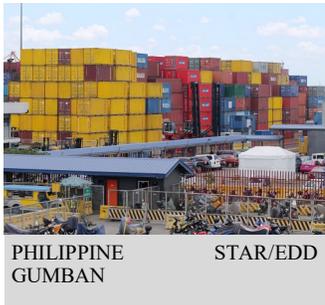
"인플레이션이 4%를 약간 넘을지라도, BSP가 5월 16일에 회의를 열 때 여전히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탄은 말했다.

"긴축 주기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06/2352818/april-inflation-seen-breaching-4-percent-target](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06/2352818/april-inflation-seen-breaching-4-percent-target)

1분기에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May 06, 2024 | Lourdes O. Pilar | BusinessWorld



필리핀 경제 성장은 강한 사설 소비와 정부 지출 덕분에 지난 3개월 동안의 성장세를 따라 1분기에 확대되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말했다. 그러나 고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확장을 저해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실시된 20명의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에 대한 BusinessWorld의 조사 결과, 2024년 1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중앙값 추정치는 5.9%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이전 분기에 기록된 5.5% 성장률보다 빠르지만 2023년 1분기에 기록된 6.4% 확장보다는 느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값 추정치는 올해 정부의 6-7% GDP 성장 목표에 비해 조금 낮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5월 9일 목요일에 1분기 GDP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고 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이 고래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및 사설 지출이 올해 초 경제 확대를 견인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SBC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지역 경제학자인 Aris D. Dacanay는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지난 분기에 지역 동료들을 계속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필리핀 GDP의 주요 요인인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노동력 부족 상태에 있으며, 가계 저축율은 생활비 상승을 보완하기 위해 전염병 이전 수준보다 낮습니다."라고 다카나이씨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지출은 전년대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의 저 활용률에서 배운 국가 기관들은 2024년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출도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국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2023년 동기 대비 10.72% 상승하여 1분기에 1.206조 페소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상품 수출은 2024년 처음 두 달에 15.6% 감소한 103.3억 달러로, 수입은 3.9% 감소한 199.4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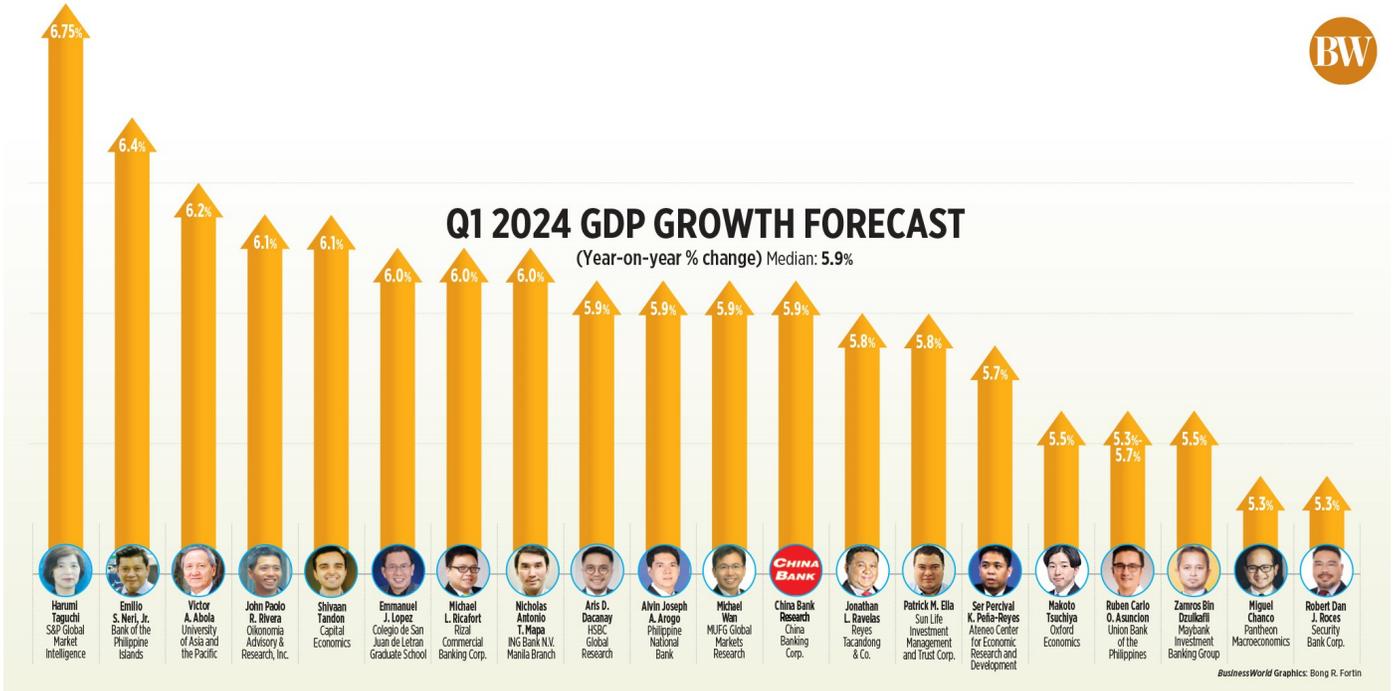
이로 인해 무역적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85억 달러에서 96.1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Colegio de San Juan de Letran 대학원 교수 Emmanuel J. Lopez는 이메일에서 "인프라 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3]

1분기에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Cont. from page 2]



예산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2개월 동안 인프라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여 1,135억 페소에서 1,205억 페소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GDP의 5-6%에 이르는 인프라 지출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행정부는 9.14조 페소로 구성된 185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주요 인프라 프로그램의 실행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옥스퍼드 경제학의 부경제학자인 Makoto Tsuchiya는 어려운 글로벌 환경으로 인해 1분기의 수출 및 사설 지출의 기여가 최소화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간적으로, 수출은 주로 유리한 기초 효과의 지원을 받아 4분기의 축소로부터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한 치솟거나 더욱 강력한 반도체 수출 또한 주요 지표로 높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전망이 어렵게 전환되면서 사설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설 투자도 외부 수요의 약화로 인해 여전히 둔화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츠치야씨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고인플레이션, 이자율

"소비자물가가 기간 동안 더욱 완화되면서 가계 소비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로 한 수출 회복도 GDP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모든 부문이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서비스 부문이 주로 경제를 주도했습니다."라고 중국 은행 리서치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율 환경은 여전히 사설 건설 활동에 도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엘니뇨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핵심 인플레이션은 1분기에 평균 3.3%로, 작년 동기 대비 8.3%의 평균보다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3.8% 예상치 이하이며, 올해의 2-4% 목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달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해 정책 금리를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6.5%로 네 번째로 연속으로 유지하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BSP 총재 Eli M. Remolona, Jr.는 이전에 인플레이션의 상향 리스크가 악화되어 이전보다 더 고래주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격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올해 4분기나 2025년 1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시장 연구의 MUFG 선임 통화 분석가인 Michael Wan도 이메일에서 소비자 물가가 느리게 상승하고, 견고한 노동 시장 및 관광 지출 증가와 함께 지난 분기 사설 소비가 서서히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4]

1분기에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Cont. from page 3]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이자율과 식품 가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의 상향 리스크로 인해 성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필리핀 페소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2025년 1분기에 첫 번째 BS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2024년 3분기로부터 이동되었습니다."라고 Wan씨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유니온은행의 주요 경제학자인 Ruben Carlo O. Asuncion은 이메일에서 "가뭄이 농산물 생산과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 최근 BSP 조사에서 가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순위소심, 강력한 재정 지출 자극의 누락, 높은 이자율 및 신용 축진의 친숙한 상황 속에서 필리핀 경제가 '잠재력 아래'로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주요 경제학자인 하루미 타구치는 "2024년에도 경제 성장은 지속적인 머리 바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목표에는 못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망을 살펴보면 여전히 선진국의 부진한 수요와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직도 둔한 해외 수요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의 통화정책 긴축의 뒤따른 영향과 긴축된 금융 조건도 경제 전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타구치씨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필리핀 경제가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재정 지출 및 수출 회복, 그리고 연말에 가능한 통화 완화로 지원되어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은행 리서치가 덧붙였습니다.

한편, 옥스퍼드 경제학의 츠치야씨는 올해 필리핀 GDP 성장률이 평균 5.2%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목표보다 크게 낮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일부 상품 가격에 압력을 가하고, 엘니뇨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열파가 에너지 수요를 높이고,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연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지출 증가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회사인 레에스 타칸동 앤드 코의 시니어 어드바이저인 조나단 L. 라벨라스가 바이버 메시지에서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06/592855/economic-growth-likely-faster-in-q1/>

한국, 필리핀에 FTA 포털 출시

May 06, 2024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과 한국은 올해 4분기에 자유무역 협정(FTA) 정보 포털을 출시할 계획으로, 이는 양국의 FTA 및 필리핀의 다른 FTA를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Malaya
Business Insight

InterCommerce Network Services, Inc.의 대표이사이자 최고 경영자인 프란시스 로페즈는 필리핀-한국 FTA 프로젝트의 또 다른 구성 요소로 수출업체를 위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페즈는 FTA 정보 포털이 "사용자 친화적"이라며, 수출업체가 로그인하여 제품을 입력한 다음 어느 나라를 공략하고 어떤 FTA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적용 가능한 FTA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FTA 사용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필리핀 수출업체 협회의 일반 회원 모임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로페즈는 반면, 수출업체를 위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2025년 3분기나 4분기에 시행 또는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BOC(세관)의 제품 평가 보고서(PER)의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전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향상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PER은 BOC에서 수동으로 처리되며 처리에는 약 20일이 소요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페즈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한국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 5분 내에 발급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ph-korea-to-launch-fta-portal/

보다 신속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전개를 위한 전자 시스템 솔루션 활용

May 06, 2024 | Samuel P. Medenilla | BusinessWorld



[FILE] January 18, 2024: Electronic Business One-Stop Shop (eBOSS) help desk at the Robinsons Place mall in Antipolo City.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관련 정부 기관들에게 인프라 주요 프로젝트 (IFP)의 전개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4월 30일에 루카스 P. 베르사민 행정부 장관에 의해 서명된 59호 대통령 명령서(E.O.)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나 매체에는 지난 일요일에 공개되었습니다.

4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발행물에 따르면, 그는 국가 정부 기관 (NGAs) 및 지방 정부 단위 (LGUs)에게 온라인 및/또는 전자 제출 및 승인을 채택하고, IFP의 시행에 관련된 라이선스, 허가, 인증, 또는 승인의 발급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제도 접촉 정책인 공화국 법령 9485호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기관은 또한 IFP에 대한 문서 요건의 전자 복사본을 수용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마르코스는 또한 NGA와 LGU에게 디지털 결제의 수용을 위한 결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는 IFP(인프라 주요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허가, 인증 또는 승인과 관련된 것으로, 필리핀 중앙은행 (BSP)이 규제하는 개인 및/또는 공공 결제 시스템 공급업체 (PSP) 또는 전자 결제 및 징수 시스템 공급업체와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NGA 및 LGU에게는 각각의 사무실에서 IFP 처리를 위한 원스톱 상점을 설치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또한, NGA와 LGU에게는 시민 현장의 규정 및 관련 당국의 세 서명 규칙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 법령 9485호 또는 2007년 레드 테이프 방지법의 규정을 시행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규정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신청은 모든 문서 요건이 제출되었다는 조건하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국가 경제 및 개발 권고위원회(Neda)가 승인한 9.14조 페소 가치의 185개 IFP가 있습니다.

2월에 Ned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74개의 IFP가 이미 실행 중이며, 30개가 실행을 위해 승인되었으며, 10개는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83개는 프로젝트 또는 프리프로젝트 준비 중입니다.

"IFP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허가, 인증 또는 승인의 발급 프로세스를 더욱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RA 9485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마르코스가 말했습니다.

Image credits: [Ed Davad](#)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06/tap-e-system-solutions-for-faster-infra-flagship-rollouts/](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06/tap-e-system-solutions-for-faster-infra-flagship-rollouts/)

아세안+3, 긴급 상황 및 위기 시 활용할 자금 마련

May 06, 2024 | Louise Maureen Simeon | The Philippine Star

티비리시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국, 일본 및 한국 등 주변 국가들(ASEAN+3)은 긴급한 충격 및 기타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지원 시설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SEAN+3의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여기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회의의 부대행사로써 27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곳에서 신속 자금 지원 시설(RFF)의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통화(FUCs)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화(CMIM)의 새로운 시설로서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회원들은 전염병 및 자연 재해를 비롯한 갑작스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긴급 결제 수요 기간 동안 긴급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ASEAN+3의 공동 성명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위기 상황에서 조건 없이 연장될 것이며, ASEAN+3 회원국은 내년에 이 시설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 page 6]



아세안+3, 긴급 상황 및 위기 시 활용할 자금 마련

[Cont. from page 5]

CMIM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주변 국가들(ASEAN+3) 간의 다자간 합의로, 지역 내 위기 상황에서 통화 스왑 거래를 통해 이용될 수 있는 2400억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SEAN+3에 따르면, 재무 장관들은 긴급한 결제 수요가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서 비롯되었으며, 약한 경제 기초나 국내 정책 관리와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한 재정을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편, 재무 장관들은 올해 지역이 견고한 국내 수요, 회복되는 투자 및 견고한 소비 지출에 촉진되어 2023년의 4.3% 확장에서 4.5%의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회복, 주요 경제국에서의 강력한 소비 지출, 지속적인 관광 업종의 회복 및 현대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도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SEAN+3 지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성장의 약 45%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 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는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상품가 및 운송 비용의 급증, 주요 무역 파트너의 성장 둔화 및 외환 시장 변동성 증가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3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역이 팬데믹 중에 상실된 정책 여유 공간을 재건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전반에 걸친 재정 정책의 우선 과제는 재정 버퍼를 복원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에 대한 특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SEAN+3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의 상승 리스크를 고려하여 많은 회원 경제에서 물가 기대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필요한 만큼 통화 정책이 비교적 탄력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06/2352809/asean3-putting-fund-tap-during-emergencies-crises>

필리핀, EU와의 자유무역 협상 가속화 희망

May 07, 2024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은 이전에 2027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EU(European Union)와의 자유무역 협정(FTA)을 앞당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역장관 알프레도 파스컬은 어제 마카티 시에서 열린 유럽-필리핀 비즈니스 대화에서 필리핀과 유럽 자유무역 협회(FTA) 간의 협상이 단 한 해만에 이루어졌다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파스컬은 양측의 주요 협상 담당자들이 FTA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기 위해 6월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상위 중간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고 EU 일반화 우호 체제(GSP) 프레임워크를 벗어나는 목표와 일치한다고 파스컬은 말했습니다.

FTA는 무역을 60억 유로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양자간 무역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ARISE+ 프로그램 하에서 국제무역센터가 수행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GSP 체제를 통해 필리핀은 9억 5000만 유로의 관세를 절약했습니다. 게다가, GSP가 시작된 이후 필리핀의 EU 수출은 53억 유로에서 104억 유로로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EU가 주문한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는 필리핀의 총 복지가 최대 12억 9000만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잠재적인 GDP 성장은 14억 7000만 유로에서 19억 8000만 유로 사이로 예상됩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ph-hopes-to-accelerate-free-trade-talks-with-eu/

아시아개발은행: 탄소세, 필리핀에서의 잠재력 보유

May 07, 2024 | Louise Maureen Simeon | The Philippine Star

TBILISI - 탄소세 가능성이 필리핀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의 필요에 적합하고 시장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필리핀 국가 이사 파빗 라마찬드란은 탄소세의 계획된 부과가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DOF)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가격화 도구를 연구하고 최적의 혼합을 식별해야 합니다.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라마찬드란은 말했습니다.

"탄소 과세 또는 탄소 가격화인지,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이든 시장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필리핀의 맥락에 맞게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세 부과에 대한 노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필리핀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느끼는 가운데,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한 배출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조치에 대한 요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탄소세는 깨끗한 에너지의 채택을 촉진하고 녹색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수익을 생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탄소세 부과가 항상 모든 국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좋고 선호되는 선택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전력 요금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들만이 탄소세 부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라마찬드란은 ADB가 필리핀을 위한 국내 자원 동원(DRM)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잠재적으로 탄소과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마찬드란은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기후 전환을 주도하는 주요 부문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에너지가 핵심 부문일 것이므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DRM은 필리핀이 디지털 변환을 통해 세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국제 세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 평등에서의 진전을 가속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및 재난 내성을 강화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의 맥락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분석 작업에서 나와야 합니다," 라마찬드란은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07/2353093/adb-carbon-tax-has-potential-philippines](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07/2353093/adb-carbon-tax-has-potential-philippines)



In an interview with The STAR here, Asian Development Bank (ADB) country director for the Philippines Pavit Ramachandran said the planned imposition of a carbon tax has to be done in a way that is inclusive and just.

Businessworld / Fil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AKE M A N I L A

DISCOVER JAPAN'S TREASURES

200+

SAKE, SHOCHU,
WHISKY, GIN,
BEER, WINE

**CURATED
DISHES**

BY THE TALENTED
OKADA CHEFS

**OKADA
MANILA**

CORAL WING,
GRAND BALLROOM



40+

BREWRIES
DISTILLERIES
REPRESENTED

CONNECT

WITH SAKE MASTERS,
BREWERY OWNERS,
BRAND AMBASSADORS

MAY
24

2024
FRIDAY | 4:00PM
ONWARDS

SCAN FOR MORE DETAILS

